大學社會의 現實課題

漢城大 學長 姜 秉 奎

Ⅰ. 머리말

우리는 西紀 2000年代의 榮光된 새 紀元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時代로서 '80~'90年代의 여러 課業을 수행해야만 하는 時點에 서 있다. 이 나라 社會 各 分野의 役割과 機能의 輕重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未來社會學的 側面에서 말한다면 大學의 使命은 그 어느 分野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20世紀末의 우리 民族 課業이 祖國統一과 先進國 建設에 있다면, 이 國家的 課題의 수행은 오늘날 學園街에서 勉學하고 있는 未來主役들의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大學人은 現實社會에 대한 過敏한 반응보다는 未來社會에 대한 矜持와 自信과 使命感을 자각하는 슬기가 더 소중하리라 생각한다.

오늘의 大學人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認識의 바탕 위에서 民族雄飛의 터전을 마련하고 先進祖國 創造의 주체가 되는 先驅者的 召命을 다하는 準備의 廣場, 訓練의 터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Ⅱ. 大學의 現代的 理念

中世 以後의 서유럽 大學은 오늘날 東西洋 各國 大學의 母體가 되어 있으며 古代中國의 大學이나 唐나라의 國子監 또한 大學의 起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72年 즉 고구려 小獸林王 2年에 건립된 太學이나 新羅·高麗時代의 國學과 國子監 등이 훌륭한 古代大學의 모델로서 1600年의 大學史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近代學問硏究와 교육의 最高學府로서의 大學의 歷史는 日帝時代를 포함하면 50年의 역사이나 기실은 36年에 지나지 않아 韓國全體의 大學發展史는 아직은 日淺하다.

일찌기 「大學의 理念」(Die Idea der Universität, Berlin und Heidelberg, 1945)을 쓴 獨逸의 碩學 「칼 야스퍼스」는 大學의 本質은 「眞理의 探究」에 있다고 說破하였다.

우리나라 敎育法 108條는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敎授, 硏究하며 指導的 人格을 도야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理念과 그 使命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大學은 學問의 最高學府로서 眞理의 探究와 創造가 으뜸가는 存在理由이며, 이는 주로 大學敎授의 職能과 本分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은 젊은 世代를 교육하여 國家有爲의 指導者로서의 資質과 人格을 함양하는

敎育의 場所인 바, 이는 官吏養成을 根本目的으로 하였던 古代大學이나 文藝復興 이후 人類의 새로운 文化創造에 앞장섰던 近代大學 등 모든 大學이 「指導者 養成」을 사명으로 하고 있었음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大學敎育의 중요한 使命이 學生의 收容과 敎育에 있으니 자라나는 젊은 世代를 四書의 大學에서 말하는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즉 유능한 社會的 指導者로서 교육하여 그 능력을 啓發하고 資質을 향상시키는 데 最善을 다해야 할 줄 안다.

그러나 現代의 大學은 眞理探究와 學生의 敎育이라는 敎育的 次元을 훨씬 넘어서 國家發展에 적극 참여하는 社會奉仕의 使命으로까지 進展하고 있으니 여기에 現代產業社會에서의 「大學의 存在와 그 使命」이 실로 莫重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現代의 大學敎育은 古代大學처럼 四書三經式 大學이어서는 아니 되며 抽象的, 歷史哲學的 大學理念에 拘礙될 수는 없다. 또한 現代의 大學機能은 近代大學처럼 무한한 學問의 自由만 高唱할 수는 없다.

즉 現代의 社會的 變遷과 歷史的 潮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現代產業社會에 適合한 大學의 機能이 發揮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多元的 社會機能과 職業主義(vocationalism)的, 實用主義的 大學으로 개혁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하여 大學의 本質인 眞理의 探究와 創造및 學生의 敎育과 함께 大學이 지니는 모든 力量을 집약하여 國家發展에 공헌하는 社會奉仕的 機能을 다할 때 비로소 大學이 高麗 忠肅王 敎令이 말하는 「學校風化之源」이 되고 朝鮮朝 儒學이 말하는 사회의 「首善之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간 大學은 社會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였지만 앞으로 더욱더 社會奉仕機能을 확충하는 것이 새로운 大學像을 定立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새 時代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이 改革의 意志를 굳히고 새로운 跳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社會的인 要求와 國民的 輿望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近代大學史는 길게는 50년 짧게는 30여년에 지나지 않아 美國 등 先進國의 大學史에 비해서 그 歷史와 傳統이 아직은 얕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各 大學은 나름대로 長足의 發展을 期했으며 그 質量的 成長을 거듭하여 世界 有數의 大學水準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 成長過程 속에 적지 않은 問題를 내포하여 왔음도 否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大學의 改革」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80~'90年代에 있어서 大學의 先進的 發展을 企圖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Ⅲ. 世界水準의 大學像

各 大學이 지금 摸索하고 國民과 社會가 기대하고 있는 大學發展의 一般原則 즉 새로운 大學像의 定立方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새로운 大學傳統의 樹立과 創造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現代大學史에 各 大學은 다 같이 새로운 大學傳統을 확립하기 위하여 能動的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大學의 本質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大學人의 歷史的 使命을 재인식하여 韓國의 大學, 아시아의 大學, 世界의 大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지향의 意志가 있고 傳統을 創造하겠다는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바드大學을 크게 발전시킨 엘리오트 總長은 말하기를 "大學發展의 열쇠는 大學을 발전시키겠다는 大學人의 意志가 融合할 때 可能하며 그 융합의 뿌리는 그 大學의 傳統에 있다"고 하였다.

존스 홉킨스大學의 初代 總長이었던 길맨 博士는 "大學의 傳統이란 敎授와 學生, 在學生과 卒業生, 敎授硏究의 社會的 期待, 大學行政과 敎職員間의 긴밀한 協同 속에서 合目的的으로 創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뜻에서 새로운 大學은 모든 大學人이 共同으로 創造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둘째, 學問硏究體制의 整備이다. 大學이 學問하는 곳이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大學은 學問을 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하고 學術硏

究와 發展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學問의 共同廣場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學術研究의 世界的 趨勢를 파악하고 最新 資料를 수집하여 이를 익혀서 韓國的 學術次元으로 昇華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豫算 및 施設과 研究意志가 일치하여야 할 줄 안다.

그러한 의미에서 大學의 學術研究는 研究室과 圖書館이 그 産室이 되어야 하며 大學敎授를 중심으로 하는 研究所의 運營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새 時代의 大學改革에는 敎授의 學術研究에 그 力點이 주어져 있으며 이는 또한 大學敎授의 本分이기도 하다.

따라서 學問研究의 創造體制를 갖추어 그 研究業績이 國內 各 學會를 통하여 발표되고 世界學術大會에서 認定을 받아 「學問하는 社會」 즉 大學社會의 特性이 충분히 發揮될 때 그 大學은 발전되고 새로운 大學像이 浮刻되리라 생각한다.

세째, 勉學의 기틀과 學風의 振作이다. 敎育은 大學의 機能 중 研究 못지 않은 社會的 機能인 바 敎科目의 選定이나 敎育內容의 충실은 基本的인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敎授와 學生間의 人間關係이다.

敎授는 授業을 통하여 知識을 傳達하는 媒介的 役割에 그치지 않고 배우는 學生의 知識蓄積과 人間形成 및 人格涵養에 至大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感受性이 예민하고 새로운 知識에 대한 의욕이 강한 學生들의 勉學雰圍氣를 적극 조성하여 社會의 有爲한 人材로 양성하는 學風의 振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一般的으로 말하여 大學이 成長하는 데 百年의 時間이 소요된다고 한다. 오늘날 歐美 先進各國 大學이나 其他 世界의 有數한 大學은 그러한 長久한 時間에 不斷한 努力과 오랜 傳統을 통하여 世界的 大學像을 定立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國家發展의 速度와 병행해서 大學 또한 그 發展史를 短縮시키고자 하는 强烈한 意志와 社會的 期待 그리고 民族的 興望이 相乘作用을 하여 國家的 必要(national needs)에 副應하고 있다.

Ⅳ. 大學社會의 共同課題

現代社會에 있어서 大學은 分離·孤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共同社會的 規範과 테두리 속에 存在하는 公共機關이 되어 있음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大學에서 所定의 課程을 이수한 학생 또는 大學院 卒業生이 社會 各界各層에서 社會의 엘리뜨가 되어 國家發展의 推進勢力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大學의 建議가 國家發展의 進路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大學敎授가 産學協同과 國政參與의 媒介體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大學은 多元的이며 複合的인 現代産業社會의 分業的 構造 안에 國家有機體의 한 부위를 점하여 所任을 다하고 있으니, 大學의 役割은 그 大學만의 문제가 아니라 民族的 力量의 評價基準이 되고 國民의 水準을 測定하는 基礎가 된다. 그러므로 大學은 民族的 力量을 축적하는 實踐方案으로서 스스로 發展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그 存在價値가 公認되어 社會的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이다.

世界의 先進學問水準이 宇宙文明을 창조해 가고 있으며 콤퓨터가 人間의 役割과 機能을 다하는 科學文明은 其實 많은 部分이 大學에서 創造된 것이었다. 한 國家의 學問水準이 先進水準과 겨루어야 함과 똑같이 한 大學의 質的 水準은 國內 大學社會에서 平準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精進을 해야 함은 大學의 本質이기도 하다.

大學社會는 學問社會며 眞理社會이며 道德社會이고 人格社會이다. 모든 敎職者들은 良識과 合理主義를 基底로 하고 實力과 人格을 바탕으로 하여 敎權의 確立과 權威의 高揚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大學의 發展을 위하여 各自가 지니는 能力을 최대한 發揮하여 大學敎授의 職分을 다하고 眞理의 파이롯트로서의 使命을 完遂하여 大學의 期待와 社會의 興望에 副應하여야 한다. *